

## 2011년 세계 화학의 해 선포

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화학회는 3월8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화학학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세계 화학의 해 선포식을 열었다.

세계 화학의 해(IYC;International Year of Chemistry)는 화학이 인류 복지에 기여한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2008년 UN 총회를 통해 지정됐다. 2011년이 퀴리 여사가 노벨상을 받고 국제화학회협회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.

2011년에는 세계적으로 <우리의 삶, 우리의 미래, 화학과 함께>라는 슬로건 아래 각국에서 다채로운 화학 관련행사가 펼쳐지고, 국내에서도 화학연합(ChemConnect), 화학화합(ChemConsort), 화학회합(ChemCongress) 등 3개 부문에서 각종 사업 및 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11/03/08>